

보도시점 2023. 9. 3.(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9. 1.(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폐막

- 기후변화 적응을 주제로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토론의 장...성공적 마무리
- 적응주간 논의 내용, 3개월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의견으로 공유 예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적응주간’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월 1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응주간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해리 브루스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의장, △나빌 무니르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 이행기구(SBI) 의장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 전문가 및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해 전 세계 66개국 1,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전 지구적 적응목표(GGA)*의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국가 적응계획의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등 기존 적응의 논의에 대한 한계를 보완했다.

* 전 지구적 적응목표(GGA: Global Goal on Adaptation):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①적응 역량 강화, ②기후 탄력성 강화, ③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을 목표로 함

이번 적응주간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적응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이행을 촉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등 행사 기간 동안 적응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의 확대와 변혁(A New Era for Adaptation: Scaling Up and Transformation in Adaptation)’이라는 주제로 개회식,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엔환경계획 총회, 글로벌 적응 대화 등의 국제적인 토론회(포럼)가 진행됐다.

또한, 기후위기사대 지역 차원의 적응을 위한 국내 지방정부의 적응 선언식, 국민 대상 적응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 공공·민간 부문 적응 전시관* 등 다양한 국내 행사도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24개 기관·업체(26개 전시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주관한 아·태 국가적응계획 국제 토론회(포럼)에서는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이행점검 전반의 제도·정책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모니터링)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가적응계획 의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과학적 평가, 부문별 접근법, 자원 확대 및 협력 방안 등

유엔환경계획이 주관한 제8차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토론회(포럼)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30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정책결정자,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응 협치(거버넌스), 과학기술, 자원, 부문별 적응방안을 비롯해 적응 관련 최신 동향 및 지식 등 폭넓은 주제들을 논의*하고, 적응 관계자들과 협력을 구축하여 아·태지역 적응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 식량 시스템, 생태계 및 생태 서비스, 공동체 도시, 기반시설 및 정주지역 등의 회복력, 성인지적/사회 분야 등을 고려

‘글로벌 적응 대화’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의 개회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영상축사,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최고 전문가 5인*이 연단에 올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가장 최신의 국제 논의 동향과 각국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해리 브루스 유엔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의장, 나빌 무니르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SBI) 의장 겸 주한 파키스탄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락스미 드완티 인도네시아 환경 산림부 국장(좌장: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특히 3개월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적응목표(GGA)와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에 대한 강력한 결의를 담은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중과의 질의 시간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임상준 차관은 “한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경험은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이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이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전 지구적 차원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 노력을 평가하는 체제로 매 5년마다 시행, 올해 COP28에서 제1차 GST 결과 도출 예정

한편, 이번 행사가 국제행사임에도 다양한 국내 행사를 개최한 것도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Scale up Local Adaptation, Act now!)’라는 표어 아래 8월 30일 열린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은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노력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기회가 됐다.

이 행사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17명의 기초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적응이 필요한 현장은 바로 지방정부이며, 이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실천 선언으로 관련 적응 정책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후위기 대응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이 참가한 여러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8월 28일에는 탄소중립 서포터즈와 에코프렌즈로 활동 중인 28명의 청년이 탄소중립 활동 공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운동 등 올해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31일에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한국 청년들의 대화(생존을 위한 전략)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통해 국제 인사와 대한민국의 전문가, 시민단체,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현재 상황과 미래 대응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이번 적응주간 논의 결과는 3개월 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공유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적응 의제 진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유엔환경계획(UNEP) 포럼 결과.
2. 글로벌 적응대화 결과. 끝.

담당 부서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신승철 (044-201-6964)

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국제포럼

① 아시아·태평양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 주관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최빈개도국 전문가 그룹(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LEG)
- 행사명 : 아시아·태평양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Regional NAP Expo for Asia and the Pacific)
- 주제 : 적응을 위한 새로운 단계/시대: 적응의 확대 및 변혁 (A New Stage/Era for Adaptation: Scaling Up and Transformation in Adaptation)
- 일시 : 2023.8.28.(월) ~ 8.30.(수)
- 구성 : 총회 3회, 분과 세션 12회
- 참석규모 : 국내외 국가적응계획 관련 정부, 학계, 민간 관계자 200여 명
- 성과 : 국가적응계획, 전 지구적 적응목표 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 적응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② 적응비전포럼

- 주관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무국
- 행사명 : 적응비전포럼(Resilience Frontiers Working Session)
- 일시 : 2023.8.28.(월)~8.30.(수)
- 개요 : UNFCCC 차원의 적응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을 위해, 기후위기 회복탄력성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 논의
- 목적 : 미래의 변혁적 변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적응차원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
- 참석규모 : 초청 받은 국내외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 관계기관 전문가 50여 명

③ 적응위원회 워크숍

- 주관 :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 행사명 : 적응위원회 워크숍 (Adaptation Committee Workshop: Boosting Region-wide Coherence on Adaptation)
- 일시 : 2023.8.28.(월) ~ 8.29.(화), 14:00 ~ 17:30
- 주요 내용 : UNFCCC 차원에서 고려를 위한, 아태지역 차원의 국제적 적응행동과 지원을 위해 일관되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논의
- 참석규모 : 아시아 지역 학계, 국제기구 등 유관 기관 전문가 40여 명

② 제8차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포럼

- 주관 :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행사명 : 제8차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포럼(The 8th Asia-Pacific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um)
- 주제 : 모두의 회복력: 변혁적 이행의 시행(Resilience for All: Enabling transformative implementation)
- 일시 : 2023.8.30.(수) ~ 9.1.(금)
- 참석규모 : 국내외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 유관 기관 전문가 300여 명
- 구성 : 총회 4회, 분과 세션 19회
- 주요 내용 : 기후변화 영향과 회복력의 상호연결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촉진 요소의 상호 연결성, 기후변화와 아시아·태평양 생물다양성의 연관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손실 및 피해, 이해관계자와 회복력 주제(식품시스템, 생태계, 커뮤니티, 도시, 인프라 및 정착지) 논의
- 성과 : 적응 관련 최신 동향, 지식, 정보들을 공유하고, 전 세계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아·태지역 적응 역량 향상에 기여

□ 개 요

- (일시/장소) '23.8.30(수) 16:00~17:30 / 그랜드볼룸 A+B홀(2층)
- (주제)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의 확대와 변혁”
 - * A New Era for Adaptation: Scaling Up and Transformation in Adaptation
- (참석자) 임상준 환경부 차관, COP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 GCF 사무총장, UNFCCC SBSTA·SBI 의장, 주한호주대사, 인도네시아 기후변화국장 등
 - * 전 세계 적응 전문가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심이 많은 청년 등 약 200여 명 참석

□ 주요 내용

① 개회

- (개회사)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시간 약속한 것들이 이행되길 바라며 오늘 미래 세대를 위한 진심 어린 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
- (축사)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적응 행동 촉진이 필수적이며 시의적절한 행사 개최를 축하
- (기조연설) COP28 사무총장은 전 지구적 적응목표 프레임워크*가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강조
 - * ①적응 역량 강화, ②기후 탄력성 강화, ③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GGA)의 달성을 위한 포괄적 논의체계로 COP 28에서 도출될 예정

② 패널 토의

- (논의주제) COP28이 3개월 남은 시점에 국제사회 적응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메시지를 도출이 필요한 시의성 높은 3가지 주제*를 논의
 - * GGA 프레임워크 결과물, 국가적응계획의 수립 및 적응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 (전 지구적 적응목표) 올해 COP28에서 결과물이 도출될 전 지구적 적응 목표의 진전을 평가해 줄 체계로서 프레임워크의 기대 결과물
- ⇒ 강력하고 실용적인 GGA 프레임워크를 도출할 것임에 공감대를 형성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단합(unity)를 기반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 (국가적응계획) 개도국이 적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국가적응계획(NAP)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토의

⇒ 재정지원과 자원 접근성 완화가 핵심이며 모범사례 공유 및 기술 이전도 유용한 수단임에 공감, 또한 개도국의 인식개선도 필요

- (이행) 적응의 이행을 비약적으로 증진(scale up)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및 국제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토의

⇒ 민간 자원 동원의 필요성과 역량배양 및 기술 지원의 유용성,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한 실용적 적응 조치 도출 및 확산 등이 제시

③ 청년 질의응답

○ (기대 역할)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서 선·개도국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 청년세대는 기후변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견이 국제사회에 적극 반영될 필요성이 큼

○ (참여) 정책결정자가 아닌 청년들이 적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례가 있는지

-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참여를 통해 적응을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 중

④ 마무리 말씀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한국의 적응대책 수립이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었으며 그간의 경험과 교훈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을 약속

□ 향후계획

○ 토론 결과물은 올해 당사국총회에서 시행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과 함께 적응 의제의 진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공유 및 홍보

참고

글로벌 적응대화 참석자 프로필

□ 축사 및 기조연설

이름	사진	소속 및 직위	국가	주요 경력	비고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대한민국	- 제8대 유엔사무총장 -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	영상 축사
마지드 알 수와이드 (H.E Majid Al Suwaidi)		COP28 사무총장 겸 특별대표	아랍 에미레이트	뉴욕 주재 UAE 총영사	기조연설

□ 패널

이름	사진	소속 및 직위	국가	주요 경력	비고
마팔다 두아르테 (Mafalda Duarte)		GCF 사무총장	포르투갈	기후투자기금(CIF) CEO	
해리 브루스 (Harry Vreuls)		UNFCCC SBSTA 의장	네덜란드	- 투명성 의제 관련 유럽연합(EU) 협상가 - SBSTA의 EU 코디네이터('16~'22)	
나빌 무니르 (Nabeel Munir)		UNFCCC SBI 의장 겸 주한 파키스탄 대사	파키스탄	뉴욕 UN 파키스탄 대표부 부대표	
캐서린 레이퍼 (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	호주	- 호주 COVID-19 대응총괄팀장 - 주대만 호주대표부 대표	
락스미 드완티 (Laksmi Dhewanthi)		기후변화협약 협상교체 수석 (환경·산림부 국장)	인도 네시아	- 환경 데이터정보 부차관보 - 환경경제 부차관보 - 환경 관련 무역 및 기후변화 협상가	장관 대참

□ 좌장

이름	사진	소속 및 직위	국가	주요 경력	비고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대한민국	-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부교수 - Univ. of the Andes 경영대학 조교수 - Yale Univ. 박사후연구원	